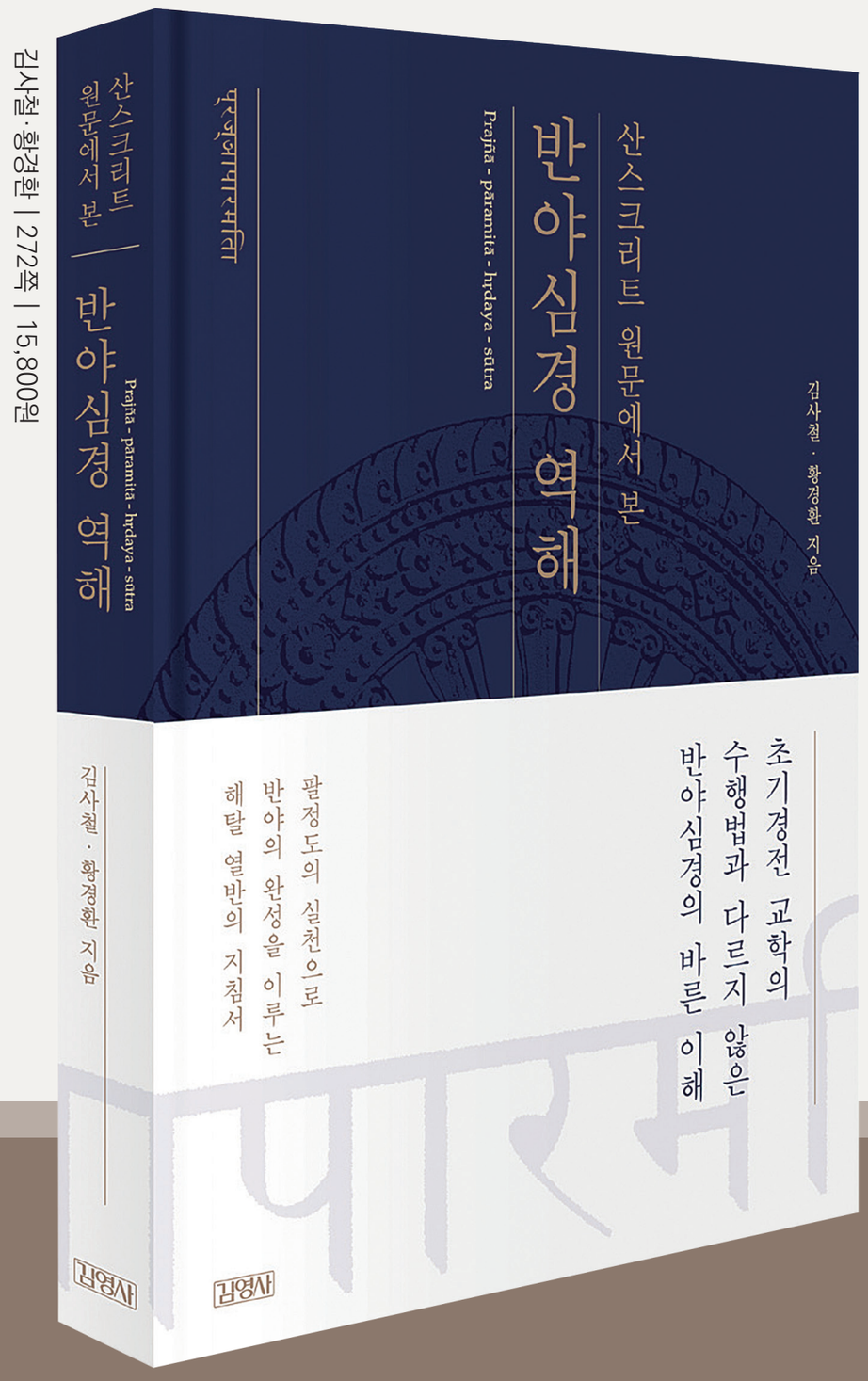
깨달음에 이르는 21세기의 로드맵
명상으로 증명하고 실천으로 완성하는 반야

저자는 이렇게도 말한다.
대승불교공부를 30여년간 해 왔지만 솔직히 말해 이 반야심경의 大意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20여년전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선구자 김사철박사와 산스크리트원문에서 본 반야심경을 공저로 출판한후
다시 초기불교의 기초지식을 익히고 점검하고 쌓은후 이번에 개정증보판을 한국불교1600년史에 밝혀지지 않았던
반야심경 말미의 다섯 만트라의 비밀을 풀다라는 각주를 달아 출간하게 되었다.
반야심경의 대의는 심경말미의 다섯 만트라(가테가테, 파아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 스바하)로 설명하고 있다.



김사철·황경환 | 272쪽 | 15,800원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Prajñā - pāramitā - hṛdaya - sūtra

- 추천사 -

"이 책은 초기불교의 공(空) 개념을《반야심경》의 공 해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또한 이제 까지의 해설서에서 간과되어왔던 계(戒)의 중요성을 새롭게 읽어내고,
이것을 정(定)과 혜(慧)의 삼학(三學)으로 엮어 말미의 만트라로 귀결시킨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너무나 친숙하여 오히려 무심하게 낭송해 왔던《반야심경》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돌이켜보도록 자극하고 있다."
_임승택(경북대 철학과 교수)

"《반야심경》을 초기불교 수행법에 따라 체득하겠다는 도전과 진솔한 체험이 담긴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반야심경》의 생명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_강성용(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김영사 TEL: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